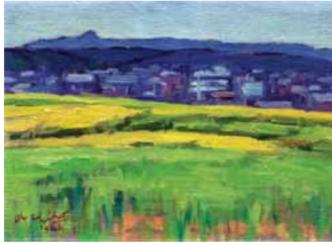


폐허의 한옥에 스며든 '봄'

김환기 화백 '1-1-70' 살 기회

A-옥션 경매행사, 18일 금호갤러리



오지호 작 '봄경'

남도의 목향과 유화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경매가 광주에서 열린다.

(미술품 경매회사인 (주)A-옥션은 오는 18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제7회 광주 경매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경매에는 김환기, 오지호, 천경자 화백 등 지역 대표 작가들의 작품 등 모두 274점이 출품되며, 경매 출품작은 13일부터 18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시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작품은 김환기 화백의 '1-1-70'이다. 이 작품은 김 화백이 미국 뉴욕에 머물 당시 수많은 인연들을 하나하나의 점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철학적 사유가 담겨 있다.

오지호 화백의 '봄경'(추정가 1500만~2500만 원)은 남도의 봄 풍경을 그림의 색채로 담아낸 작품이다. 사실적인 묘사로 유명한 초상화의 대가 석지채용신의 '노부인상'(5000만~1억 원)은 그의 작품 중 몇 안 되는 여인상이다. 문의 02-725-8855. /김경연기자kki@kwangju.co.kr

꽃에 삶을 덧칠하다

한희원 초대전 갤러리리채 12~26일



'방랑자의 꽃'

서양화가 한희원씨는 시인들이 사랑하는 작가다. 신경림, 곽재구, 정윤천 시인 등이 한씨에게 시집의 삽화를 맡겼던 이유는 그가 미술과 문학의 경계를 섬세하게 작품에 옮겨 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인들이 보석 같은 시어로 인생을 이야기하듯 한씨는 은유와 환유를 오가는 그림 언어로 삶을 작품에 녹여내고 있다.

갤러리리채는 12일부터 26일까지 한씨를 초대해 '시간의 여백'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한씨의 서른 세 번째 개인전으로 300호 대작을 비롯한 모두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물감을 두텁게 칠하는 마티에르 기법으로 그린 작품들은 매우 거칠면서도 자유로운 입체감이 돋보인다. 특유의 풍부한 색감은 오랜 세월 동안 한 겹씩 덧칠한 작품에 무게감을 더하면서 섬세하고 깊은 서정성을 보여준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한씨는 일본, 대만, 미국, 프랑스 등에서 전시회를 가졌으며 대동 미술상, 전남연극제 무대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남구 굿모닝 양림축제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412-0005. /김경연기자 kki@kwangju.co.kr



문화공간 '봄'은 옛 건물에서 사용했던 유리창 등을 활용해 과거와 현대가 소통하는 이색 공간을 만들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봄'의 전경



전시·공연이 펼쳐지는 내부 공간

문화가 흐르는공간

17 '목포 1935-봄'

"집이 사람을 가리고, 주인을 찾았다" 목포의 문화공간 '봄'의 주인장 안치운(43)씨의 말이다. 파주가 고향인 안씨가 목포의 낡은 집을 찾아 문화공간을 만든 게 아니라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했던 폐가가 사람들 중에 안씨를 골라 그를 불렀다는 것이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1935년 일본인 거리가 있던 목포시 죽동에 들어선 한옥 한 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가장 나중에 이 집에 터를 잡은 사람은 춘화당 한약방을 하던 사람이고, 나이가 들어 5년간 집을 비운 상태였다. 별채는 거의 무너져 가고 있던 이 집을 안씨가 사들여 한옥형식의 안채를 손보고, 별채에는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어 '목포 1935'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한옥의 부속 건물을 손봐 최근 목포의 가장 뜨거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봄'을 만들었다.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사람을 찾고 부른다"는 안씨의 말을 이처럼 장황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안씨가 이 낡은 한옥을 손보는 과정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안씨는 옛 주인에게 "집이 간직하고 있는 추억을 최대한 보존하겠다"고 말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그는 옛 주인이 벽에 걸었던 그림이며 책, 거울까지 버리지 않고 새 단장한 공간에 그대로 걸어 두었다. 또 '춘화당 한약방'의 간판도 버리지 않고 문 한쪽을 장식했다.

낡은 건물에 카페형 문화공간이 들어서는 이질적인 작업이 이 같은 '스며들기'를 통해 너무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봄'이 지역의 문화 명소가 되는 밑거름이 됐다.

'봄'의 운영도 마찬가지다. 철저지 지역 속으로 스며들어 꽃을 피우고 있다. 이름 '봄' 또한 옛건물이었던 '춘화당'에서 따왔다.

현재 이곳에서는 옛 주인의 소장품을 선보이는

전시와 하고 있다. 40여 평의 공간에 새롭게 탁자가 놓이고, 주방이 들어섰지만 오랜 시간 집을 지고 있던 그림이 공간을 장식하고 있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봄'은 크게 전시와 공연을 하는 공간이다. 지역 작가와 예술가의 참여가 활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보다는 스스로 돈을 만들어 행사를 진행하는 특징도 있다. 공연에 참여한 예술가에게는 출연료를 잊지 않고 지급하는 것도 '봄'의 자존심이다.

작은 공간이지만 한 해 상설공연만 60회에 달하고 초대전, 대관전, 상설전 등 지난해 3차례의 전시회를 열었다.

"끈끈한 정과 여유"는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안씨의 고집이다. 이를 잘 표현한 행사가 '미식 콘서트'다. 맛의 고장 목포의 특징을 잘 살려 음식과 문화가 결합된 행사를 치르고 있다. 과거 배불리 먹는 것, 맛있게 먹는 것으로 음식의 의미가 변했다면 '봄'이 지향하는 음식은 '즐겁게 먹는 것'이다. 이를 잘 드러내는 프로그램이 미식 콘서트다.

가령, 목포에서 많이 접하는 민어 요리를 내놓고 연주자들은 '민어를 주제로 한' 노래를 들려준다. 한 때 관객이 단 2명뿐인 적도 있었지만 최근 입소문이 나면서 자발적으로 공연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연주자들도 '봄'을 통해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함께 운영하고 있는 '목포 1935'와의 시너지 효과도 거두고 있다. '봄'은 관광객이 목포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목포 1935'에 머무는 관광객이 추리닝 차림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봄'이다.

지역 주민의 반응도 뜨겁다. 지난해 7월 목포시 서산동의 큰 바위가 있는 곳인 '보리마당'에서 '봄'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문화행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서산동에서 평생을 산 한 할머니는 4시간여 동안 계속된 이 공연을 본 뒤 "우리 동네가 이렇게 예쁜 곳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문화 공간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담긴 일화다.

안씨는 "지역 사람이 즐기는 공간에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이 문화 공간이다"면서 "즐겁게 놀면서 대중성을 확보하고 문화적 토대를 만든 것이 예술가 인큐베이팅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옛 춘화당 한약방 사들여
카페·게스트하우스 개조
한해 60회 공연·전시
음식+문화 미식콘서트 '백미'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용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용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1·2층 이태리가구 3층 통원목가구 4층 모던가구 5층 던롭침대

30% ▶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1899-0240 세계 최고 던롭침대 1년 한번 세일 11월 16일까지